

광주 AI 데이터센터·전남 풍력단지 신속 추진을

광주전남연구원, 'AI 광주, 블루 이코노미 전남' 방향 제시 선도자형 사업 발굴·기존 산업과 연계 산업 다각화 병행해야

광주-전남이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 '선도자형 사업 발굴', 기존 산업과의 연계-재조합을 통한 '산업적 다각화'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의 경우 AI특화 데이터센터 및 AI기반 에너지 최적화 자율관리 통합운영 플랫폼의 구축, 무인 자율주행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를 지향하는 전남은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광양항 스마트항만 구축,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관련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일 "최근 '코로나 위기의 전환, 지역 맞춤형 뉴딜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광주전남 정책연구'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집은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춘 광주-전남 핵심 산업 중심의 연계전략을 제시하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디지털 시민성 함양 등의 실천방안을 탐색했다. 광주는 중점 육성분야인 AI를 기반으로 한 '광주형 디지털 뉴딜'을 발표하며, 2045년까지 정의로운 탄소 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목표로 '광주형

AI-그린 뉴딜', '상생안전 휴먼시티를 위한 일자리-휴먼 뉴딜'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정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남형 뉴딜사업을 제시했다. 전남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 뉴딜 연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전략을 추진한다. 황성용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광주의 주력 산업들은 사업 간 밀접한 연관 없이 개별적으로 성장해 왔다"며 "이번 디지털 뉴딜을 통해 주요 산업들을 상호 연계로 이끌 수 있는 공통적 지식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진단했다. 김진이 책임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시장 마케팅 지원, 'D.N.A(Data, Network,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점포 환경 구축, '소상공인 비대면 배송 서비스 공공

앱'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조승희 책임연구위원 외 2인의 연구자들은 "기후-환경 문제를 개념적으로 이해했던 시기를 지나, '기후-환경 위기'의 시대로 진입했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맞춘 광주전남의 환경·생태, 도시·공간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한선 호남대 교수는 디지털 역량은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의 성공에 핵심 소프트웨어에 해당하기 때문에 '디지털 시민성 강화를 위한 리더리시 교육'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철 연구원 연구기획관리부장은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보유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제안된 정책들이 지역 뉴딜정책 파급력을 극대화하는데 상승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식정보문화' 7개 기업과 전남도, 투자협약 체결

전남도는 지난달 30일 도내 신규창업 및 전남지역으로 이전한 지식정보문화 기업 7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순천과 나주에 들어선 7개 기업이 투자할 금액은 총 68억여만원이며, 지역 청년 인제 7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된다. 협약에 따라 블루코믹스(주), (주)스튜디오질풍, (주)픽토스튜디오 등 3개 기업은 순천시에 19억원을 투자해 32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웹툰·애니메이션·실감 콘텐츠 등 디지털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에 나선다. 블루코믹스(주)는 웹툰시장 코스닥 1호 상장사이자, 웹툰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는 미스터블루(주)의 자회사다. (주)시은이엔에스, (주)와이드브레인, (주)인정보기술, (주)테라에너지 등 4개 기업은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에 49억3000만원을 투자해 38명의 신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응용·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계획이다. 전남도가 중점적으로 유치 중인 지식정보문화산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지식·정보·문화를 활용해 ICT·AR·VR, 게임, 영상, 애니메이션, 웹툰 등 분야에서 부가가치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문화·실감형 콘텐츠 산업이다. 전남도는 지식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시·군과 함께 전남지역으로 이전·창업하거나 지정·지사를 설립한 3인 이상의 지식정보문화 기업을 비롯 기존 도내 소재한 지식정보문화 기업 중 고용을 3인 이상 늘린 기업 등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1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기업유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지방소멸'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 전남서 시도의회 의장협 개최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지난달 30일 장성군 백양관호호텔에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사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김한중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은 지방소멸위기에 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및 지방재정보전촉진을 위한 지방소비를 조정해 관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 14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제정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에 전달될 계획이다. 김 협의회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자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인구정책적 측면을 포괄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주민체감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kwangju.co.kr



김한중(앞줄 왼쪽 5번째) 전국 시도의회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난 30일 장성 백양사 호텔에서 임사회를 열고 지방소멸위기에 지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제공>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추진단장 한국노총 출신 정관 임명

'광주형 일자리' 등 지역 노사 상생 사업의 기능과 역할을 설계하는 기구인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추진단장에 한국노총 출신이 임명됐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정관(43)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부의장을 선임 단장으로 임명했다. 정 신임 단장은 대우에이텍 노조위원장, 금속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을 지냈다.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추천으로 단장에 임명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시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노동 관련 단체와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노동 서비스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지난 5월 출범한 추진단은 노동계와 협의하며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설계하게 된다. 추진단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발기인 구성, 창립총회 등 절차를 거쳐 자동차 공장 완공과 함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하는 내년 10월 재단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문화경제부시장 직속으로 운영하며 단장·4급 상당 전문 임기제 보좌관·직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감사위, 그린카진흥원 '방만운영' 경징계 논란

두달 감사 후 "징계대상 아니다" '숨방망이' 처벌 진흥원과 같아 시청 내부선 '감사위 결과 의외'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담당 부서에서 제기한 그린카진흥원의 '방만운영'에 대해 두달여간 감사한 끝에 경징계안을 제시·의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어 그린카진흥원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8월 2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감사를 벌인 뒤 두 달 만에 결과를 내놓은 결과물이다.

감사위는 광주시 자동차산업과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 중 직원이 차량을 부당하게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또 배정된 당시 원장에 대해서도 '방만운영' 등이 징계 대상은 아니다"고 결론 내렸다. 이를 놓고 광주시청 내부에선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는 반응이 나온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통상 담당부서에 산하기관 점검을 통해 내용은 지적사항은 축소하고 압축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담당부서의 지적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번 감사위의 감사 결과는 의외"라고 주장했다. 당시 광주시 담당부서인 자동차산업과는 자체 점검을 통해 그린카진흥원의 방만 운영을 조목조

목 지적했다. 우선 직원을 채용하는데 내부에서만 서류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합격자 24명 중 6명을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학위 구분 표기를 작성 요건에 맞추지 않은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근태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으며 단장 직무를 대행하는 부장은 규정을 어기고 단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축·부의 화환과 현금 등 중복 지급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상에게 부의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원장실엔 고가 카펫을 깔았다. 규정이 없는 전용 차량을 임차하는 등 원장을 위한 방만한 지출도 지적됐다. 또 원장과 직원이 공용차량을 출퇴근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해당 직원은 매월 교통비까지 챙겼다. 성희롱·부패·갑질 제보 등 상당

공간도 간부 사무실로 사용됐다. 7000만원 규모 행사 운영을 담당 부서 직원 배우자 업체에 맡기는가 하면 동일한 사업을 3차례 분할 계약하거나 1인 수의계약에서 가격 조사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자동차산업과는 결국 지난 7월 그린카진흥원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신분상 조치 6건(10명), 환수 2건, 개선 14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진흥원은 지난 8월 배 전 원장에 대해 조치하지 않고 일부 직원에게 경책 결정만 내리는 등 시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했으며, 시 감사위원회도 특정 감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난 9월 배정된 당시 원장은 사직하기도 했다. 한편 그린카진흥원은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 광주시를 대리해 483억원을 투자한 1대 주주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